

시골출신과
마음에 담아온 풍경과 사연



• 좌측부터 여행전문작가 이용한 씨, 사진작가 안홍범 씨.

《숨씨마을 숨씨기행》낸 여행전문작가 이용한과 사진작가 안홍범

무릇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은 그리운 것들이 많다. 짐작해 보건데 그 대상은 풍경이 될 수도 있을 것ियो,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들을 다 포함한 추억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그리도 그리웠던 게일까.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 동이, 조선달이야 장돌뱅이인 까닭에 돈 벌러 이곳저곳에 발을 내딛는다 치고, 《포레스트 검프》야 그저 달리는 게 좋아 얼떨결에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다 치자. 시인 이용한 씨와 사진작가 안홍범 씨 두 남자는 각각 글과 파인더 안에 무엇이 그리도 담고 싶어 짐을 꾸리고 여행을 떠나는 걸까. 《이색마을 이색기행》《사라져가는 이 땅의 서정과 풍경》(공동사진)으로 농익은 우리네 전통의 풍경을 좇았던 두 사람의 또 다른 공동작 《숨씨마을 숨씨기행》을 펼쳐놓고 이들의 여행 이야기에 슬쩍 동참해 그 궁금증을 풀어본다.

안홍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997년이었을 겁니다. '여의주'라고 사보작업 하면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었고, 이용한 씨는 예전에 지오에 있었으니까 일로 많이 다녔죠. 물론 일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용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는 경기도 광주, 이용한 씨는 충청도 충주니까 둘이 공감하는 정서가 비슷해요.

이용한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홍범 씨랑 같이 다니면 굉장히 편해요. 나쁘게 말하면 맞먹을 수 있다는 건가.(웃음) 그 편하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코드가 맞는다는 의미일 거예요. 고향은 다르지만 고향에 대한 비슷한 경험도 갖고 있고 그리고 워낙 저를 잘 받아준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죠.

안홍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유하는 정서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있으면 그걸 놓치게 되거든요. 가령 제가 시골을 가다가 노인을 봤단 말이지요. 근데 도시에서 혹은 시골에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그냥 지나칠 일을 이용한 씨랑 있을 땐 둘 다 함께 시선을 주게 돼요. 그리고 꼭 사진으로 남기죠. 지극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로 남습니다. 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여자 얘기도 많이 하지요.(웃음) 그리고 둘 다 바둑 두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 떠날 때 차 트렁크에 바둑판을 늘 챙겨가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여행이라 하면 사방천지에 볼거리와 느낄거리들이 주어질 터인데 무료함을 달래는데 주로 쓰이는 바둑이 웬 말이냐고 묻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여행길에서 난데없는 폭풍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혹시나 짐작할까. 여행 시 꼭 챙긴다는 바둑판은 폭풍을 만나 숙박지에 고립된 적 있는 두 남자에겐 없어서는 안 될 여행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한다.

안홍범 《이색마을 이색기행》했을 때 위도에서 열리는 띠벳놀이 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갔을 때 폭풍주의보가 떨어진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여인숙에 갇혀서 하루 종일 바둑만 두었죠. 이용한 씨는 술을 좋아하지만 저는 즐기지 않거든요. 술을 먹기도 그렇고, 따로 할 게 없으니 날씨 좋아지길 바라면서 마주보고 앉아 바둑만 두었지요. 여행이 주는 재미 중 하나가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런 추억들이 많은 편이죠.

이용한 다니다보면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번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아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고, 안홍범 씨가 다혈질이라서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지요. 둘이 싸우는 일은 없는데 안홍범 씨가 간혹 관리공단 직원들이나,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제가 말리는 경우는 많아요.(웃음)

안홍범 이용한 씨가 서해안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사고를 낸 이후로 전 이용한 씨가 운전할 땐 절대 잠을 안 자요.(웃음)

시종일관 웃으며 옛 여행담을 공유하는 이들이 최근에 펴낸 책은 우리 땅, 우리 마을을 부지런히 밟고, 찾는다는 데서 이전의 작업들과 연장선상에 놓인다. 물론 이번엔 그 땅에 깃든 '내림문화' '지킴 문화'를 씩없이 찾아다니겠다는 뜻으로 전국 각지 마을의 풍속과 그 풍속을 잇는 사람들의 사연들, 그리고 그 풍속의 역사와 상세한 정보까지 '숨씨'라 불리는 문화정보를 아울렀다.

글을 쓴 이용한 씨는 이번책의 초입에서 놀러가서 먹고 마시고 망가지는 형태의 여행은 엄밀한 의미의 여행이 아니라고 충고한다. 그가 원하는 여행은 풍경과 풍물, 역사와 문화, 사람과 마을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가슴으로 음미해 담아 오는 의미의 여행이다. 36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네 마을의 풍경과 풍속을 포착한 이 책은 두 남자의 이같은 여행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용한 여행과 관광을 완벽하게 구분 지을 순 없죠. 그렇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최근 여행서가 관광가이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감각적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담아 와야 할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물론 요즘 나오는 여행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행이라 하면 사람을 만나고 풍경과 문화를 보고 느낀 감상들을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이전 작업도 그랬지만 《숨씨마을 숨씨기행》은 르포나 다큐멘터리에 가까우면서도 이런 것들을 찾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여행을 떠날 때 참고하는 책은 없어요. 기껏해야 인터넷을 통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는 게 다지요. 오히려 다니면서 현장에서 솔깃하게 들어 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게 결정적인 정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



《숨씨마을 숨씨기행》이용한 글·안홍범 사진 | 실천문화사 | 304쪽 | 값 15,000원

안홍범_ 우리 책에는 익히 알려진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책을 작업한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숨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숨씨로 알려진 마을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보도 정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와 그 마을에 밴 정서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사진하는 사람들은 계절감을 빨리 느끼는데 전 이 일을 하면서 계절변화에 더욱 민감해지게 됐어요. 사실 산 빛깔이 달라지는 걸 바라보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연둣빛 산이 질푸르게 변하는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색달라요.

이용한_ 저희 책의 특색은 이런 거예요. 가령 산수유 마을이라고 하면 이 마을에 대해선 어느 여행 책이나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처럼 산수유의 기원, 효용, 산수유 씨를 발라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느끼는 노동의 어려움까지 담아낸 책은 없죠. 저희는 그렇게 총체적인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안홍범_ 이 책은 《이색마을 이색기행》 진행하면서 동시에 준비한 책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작업한 책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약 4년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 관련 작업들을 해오니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가면 좋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사실 그건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즐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말이죠.

이용한_ 저는 꽃감마을이 기억에 남네요. 떡을 많이 얻어먹어서 그런지 떡마을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곳 떡은 방부제 넣은 여기 떡이랑은 정말 다르더군요. 직접 그 자리에서 쳐서 만드는 떡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막히답니다. 떡장수 부부는



“군대 다녀와서 진짜 사진에 열중하게 됐죠.....사람들은 늘 어린 시절로 돌아가길 꿈꾸잖아요. 제게도 아랫도리 벗고 들판을 뛰어다니던 추억들이 어렵듯이 남아 있죠. (...) 책 작업 하면서도 소모는 할아버지, 농사짓는 할머니 모습 보면.....어린 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책이 나온 후에도 연락을 가끔 하는 분들이예요. 우리 인상이 엄청 좋았었나봐요.(웃음) 처음 취재 갔을 때도 농담 삼아 결혼하면 딱한 말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떡은 준비돼 있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물어세요. 사실 보람도 많지만 이 일은 생각보다 시기를 많이 탄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바지락 마을을 취재한다고 치면 바지락이 나는 시기가 있으니 그때 가서 촬영과 취재를 해야 하고 그때 실패하면 다음해에나 가능해지는 거죠. 그 때를 놓쳐서 소개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이들은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도 많이 봤다”며 농담을 주고받는다. 여행전문작가로서, 사진작가로서 다양한 매체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이들이 시기를 따져가며 함께 취재를 떠날 수 있는 데는 두 사람 모두 아직 미혼이라는 사실이 적잖은 여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말이 그렇단 얘가지 사실 여행 때마다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주름살 깊게 패인 우리네 어른들과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다. 《숨씨마을 숨씨기행》을 읽는 재미 중 하나도 이들의 갖가지 사연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열아홉에 충청북도 영동군 손곳감마을에 들어온 뒤로 해마다 꽃감을 깎아 매달았다는 정연기 할머니 이야기와 “중신 서는 사람이 거기로 시집가면 장작불 때구 이밥 먹는다고 해서 왔는데 웬걸 뽕나무만 때고, 방아쪼으면 나오는 싸라기까지 밥에 안쳐 먹고, 시래기두 밥에 안쳐 먹다가 언제부턴가 떡을 해 갖다 팔았는데 이게 잘 팔리더라”며 옛일을 곱씹는 김순덕 씨 이야기는 어린 나이에 시집과 장인의 숨씨까지 갖게 된 이들의 삶의 나이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안홍범 씨의 사진은 그들의 세월과 농익은 숨씨들을 산내음, 바다내음 나는 풍경과 함께 담아낸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본다. ‘짹짹이’라고 하나 이 두 사람이 이토록 열심히 우리 전통문화를 좇는 이유는 정말 어디 있을까.

이용한_ 사실 저는 농촌이라기보다는 강촌 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골에서 자랐어요.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학교에 가려면 배를 타야 했죠. 홍수가 나면 학교에 못 가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산 3개를 넘어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20리를 걷는 날도 있었고 아무튼 정말 강촌이었죠. 그렇지만 그 기억들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게 남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충주가 물에 잠

기다보니 그게 일종의 상처로 남은 건지도 모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글을 열심히 썼던 것도 고향인 충주가 물에 잠긴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잠재의식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걸 글로 표현한 것이지요. 글 쓰는 일은 저에겐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안홍범 나는 비 오면 학교 안 가서 좋아했는데.(웃음) 저도 비슷해요. 얼떨결에 사진과에 가게 됐고 군대 다녀와서 진짜 사진에 열중하게 됐죠. 사람들은 늘 어린 시절로 돌아가길 꿈꾸잖아요. 제게도 아랫도리 벗고 들판을 뛰어다니던 추억들이 어렴풋이 남아 있죠.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길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집은 지금도 참외, 오이, 고추 등을 재배하는데 책 작업하면서도 소모는 할아버지, 농사짓는 할머니 모습 보면 어린 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용한 서로가 갖는 고향에 대한 추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감하는 건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죠. 전 사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안홍범 씨의 미적인 감각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미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진가는 일정한 장면을 노멀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사진가는 아주 예쁘게 표현하잖아요. 그 예쁘다는 게 일부러 포장하고 포토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장면 그대로를 예쁘게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안홍범 씨는 특정한 장면을 참 예쁘게 표현해요. 그래서 전 안홍범 씨 사진을 좋아하는데 이번 책에서도 두 장의 사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장은 떡장수 아주머니가 나온 장면인데 마루에서 막 찍어도 되는 사진을 가장 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려 촬영했죠. 그리고 한과마을 아주머니가 유과를 바구니에 담아 대문을 나오는 사진의 경우는 앞에 강아지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강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진의 미학성을 한껏 높여주는 상황연출이죠.

안홍범 근데 그건 예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처럼 책에 소개된 사진도 독자들에게 예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저도 글은 잘 모르지만 이용한 씨 글은 성실한 면이 있어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곳저곳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곳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이용한 씨 글이 전 달하는 글에서 감성적인 글로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최근 각자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는 두 남자는 앞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풍경들과 맺은 인연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지금도 안홍범 씨는 기회 닿는 대로 풍경들을 프레임 안에 담고 있으며, 이용한 씨는 개인적으로 섬과 관련된 책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책에선 섬문화를 탐색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기행에세이 한 편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르포나 다큐멘터리와는 다르게 여행길 옆에 자신의 얘기들을 펼쳐놓고 싶은 바람이 크다.

여행을 좋아하는 두 남자가 무얼 그리 추억하고 싶은지, 그것들을 추억하려 떠난 길 위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었는지를 살짝 들여다보았으니 이젠 그 여행에서 건져 올린 새 추억들을 펼쳐볼 때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 소개된 《숨씨마을 숨씨기행》을 펼치면서 잊혀져가는 우리네 숨씨마을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눈맞춤을 해본다. 문장과 문장, 사진과 사진 사이엔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고, 풍경이 존재한다. 또 노련한 시골 어르신들의 손놀림도 함께 하며 안홍범, 이용한 씨의 어린 시절을 향한 속내도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사실 저는 농촌이라기보다는 광촌 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골에서 자랐어요.....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학교에 가려면 배를 타야 했죠. (...)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글을 열심히 썼던 것도.....고향인 충주가 물에 잠긴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